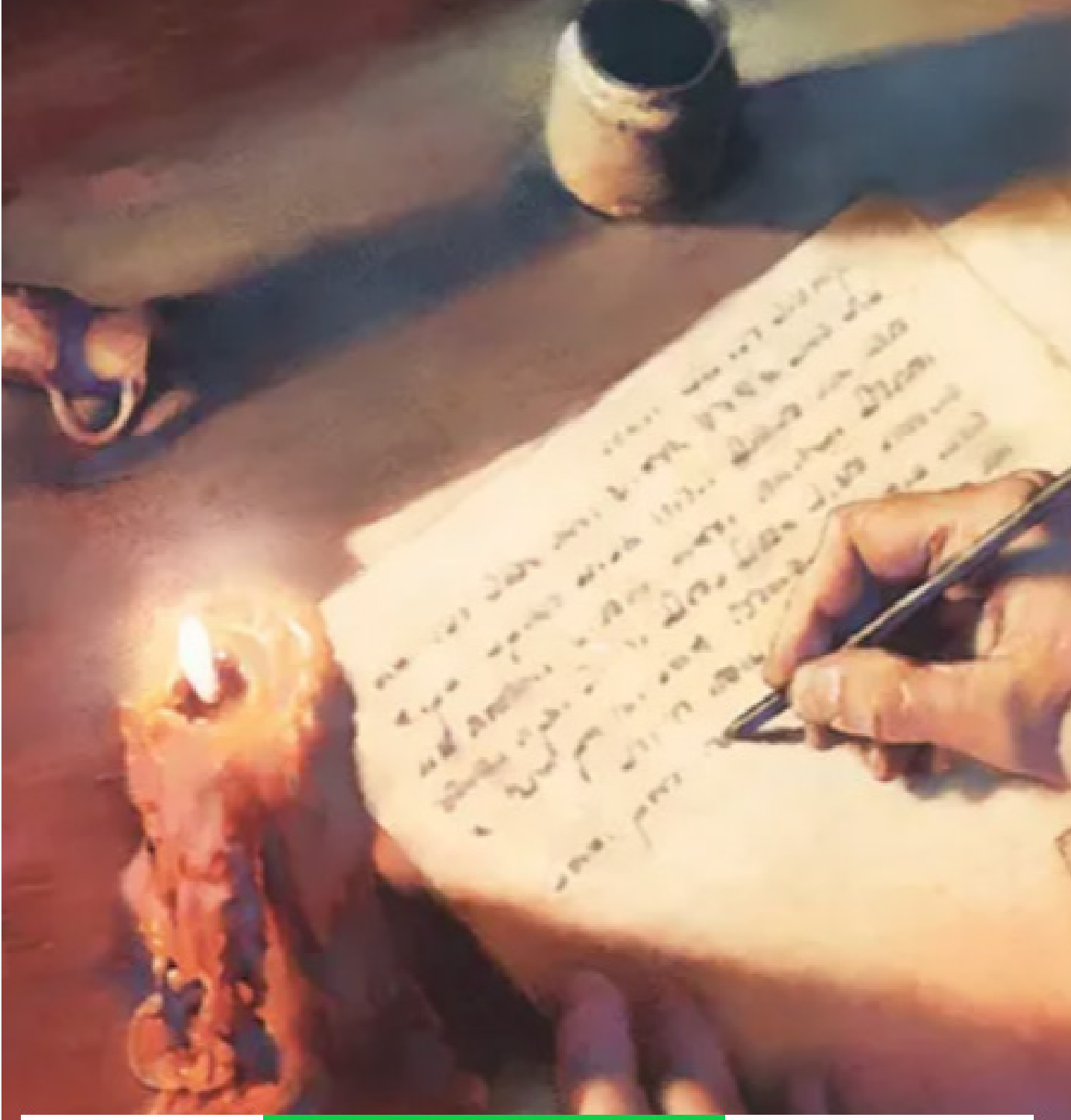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요한삼서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요한삼서 1장 =====

[요삼 1:1]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삼 1: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삼서가 쓰여진 정확한 년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요한일서와 요한이서보다 뒤에 씌여진 서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씌여진 신약의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서 다만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도 자신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사도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함이 삶에 베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에 자신을 '장로'로 언급한 것은 자신이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교회의 큰 지도자임을 드

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잘 뿌리내려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삼서 서신서는 '가이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삼서의 내용을 통해서 가이오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순교회 교사들과 나그네를 잘 접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요한은 순회 교사들을 통해 가이오가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삼 1: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 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라는 말은 순회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순회 교사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단마다 이런 순회교사와 같은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육의 강건함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가이오에게 “...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2절) 간구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프쉬케>입니다. 이 말은 ‘생명’, 또는 ‘영혼’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로도 곧잘 사용되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파스>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강건하다’라는 말은 <휘기아 이노>로서 육체적인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처럼 영혼육의 강건함을 간구했던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육의 강건함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엔 ‘영’이 없는 ‘혼’과 ‘육’의 강건함을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영혼육’의 강건함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새로운 것을 가이오에게 요구하거나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잘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의 ‘영혼육’의 강건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혼’과 ‘육’의 강건함을 뛰어넘어서 ‘영’의 강건함까지도 다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보

면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영'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이 강건해야 비로소 '혼'도 강건해지고 '육'도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혼'이나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영역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요삼 1:5]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요삼 1:6]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요삼 1:7]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요삼 1:8] 이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초대교회는 순회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와 교회를 연결할 도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사하여 도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 소식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인들을 통해서도 여러 지역의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순회 교사는 매우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순회 교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사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순회 교사를 잘 돌보는 직분자가 필요했습니다. 순회 교사는 일종의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여행하는 나그네만 나그네가 아니라 순회 교사도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순회 교사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할 일이 끝나면 다시금 교회 소식을 가지고서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해 주길 권고했습니다. "...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6절 하). 이 말은, 순회 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까지 저들을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순회 교사들이 "...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7절)고 말하면서 왜 순회 교사들에게 잘 대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회 교사들은 이방인과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식량을 얻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대접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회 교사는 오직 주를 위해 일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8절 상)라고 권고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도 "...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8절 하) 함임을 설명했습니다. 순회 교사를 돕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순회 교사들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교사들을 잘 돌봐주는 것도 저들처럼 주를 위해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목회자를 도울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저들을 도울 때에 우리 또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목회자를 도우면 목회자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 10: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요삼 1:9]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요삼 1:10]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요삼 1: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요삼 1:12] 데메드리오는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삼 1:13]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요삼 1:14]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요삼 1:15]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오'와는 달리 순회 교사들을 대접치 않은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10절 상)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척 화나 있음을 눈치 챘습니까?

'디오드레베'는 순회 교사들을 잘 접대하지 않았으며 악한 말로 교회 지도자들과 순회 교사들에 대해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는 성도들을 금하고 도리어 그런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목사와 교회 지도자를 대접치 않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사례를 주는 것을 아까워하여 오히려 목사의 사례비를 깎으려 하거나 목사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 요한이 지금의 교회를 둘러본다면 너무나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11절 상)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11절 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잘먹고 잘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참으로 선한 성도였습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요한삼서

초판발행	2026. 10. 9
지 은 이	데이빗리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국제 신학교

꿈을 향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